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 상 우 *

목 차

- I. 머리말
- II.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중요성
- III.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을 위한 접근방법
- IV.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활성화 방안
- V. 맺음말

〈 요약 〉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고고학과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소중한 유적의 훼손과 파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고고학 관련 교육활동을 통하여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유산인 고고유적의 존재와 중요성에 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일반적인 박물관의 유물전시를 통한 고고학 관련 교육활동 외에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교육, 박물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고고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발굴현장이나 고고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 그리고 전국 또는 지역적 단위 규모의 다양한 고고학 관련 행사들을 통한 대중교육 등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이 미약한 우리 고고학계 현실에서 공·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여러 고고학 관련 기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과 고고학의 대중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노력이 앞으로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대중사이에서의 고고학에 대한 학문적 인정과 더불어 고고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일이며, 또한 소중한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주제어] 고고학, 대중교육, 고고유적 보존, 대중참여, 박물관교육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접수일 : 2004. 10. 20, 심사일 : 2004. 11. 23, 심사완료일 : 2004. 12. 1)

I. 머리말

우리나라 곳곳에는 많은 고고유적이 산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많은 국토개발사업과 여러 경제활동에 의한 유적의 파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범죄적 유적 파괴행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소중한 고고유적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방안들이 강구되고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 또는 국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보존과 관리활동, 그리고 고고학전문가의 연구 활동 외에 일반대중의 적극적 참여는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고고유적의 보호와 보존의 궁극적 혜택은 결국 일반대중에 있는 것이므로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일반대중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분명히 요구되고 실제적인 참여의 길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고학의 중요성과 고고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바로 알리는 대중교육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중교육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각종 박물관, 고고학 관련 사회단체, 고고학 관련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과거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고고학의 중요성과 더불어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일반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에 산재한 많은 고고유적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다양한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 활동을 통하여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자산인 고고유적의 존재와 중요성에 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일깨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중요성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일반대중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고학과 고고유적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리는 노력 즉, 고고학의 대중화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국토개발사업과 다양한 요인에 의한 유적의 파괴와 훼손으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수의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발굴조사 건수가 20-3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조사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많은 학문적 성과는 고고학 관련 분

야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문화적 그리고 지식적 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교류되고 일반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또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문화적 혜택과 인접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의 고고학의 기여 등 고고학의 진정한 모습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문제 역시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물질적 자산인 고고유적과 유물을 다루는 고고학은 학문적인 성숙과 발전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 성과와 경험을 대중과 함께 나누며 이를 통하여 일반대중들에게 고고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 고고학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둔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고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다. 이 고고유산은 고고학자들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지는 연구 성과는 공동의 주인인 일반대중 모두가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교육과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은 고고학자들의 윤리적 의무로서 일반대중에게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거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고고학자들은 일반대중에게 적극 다가가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발굴 또는 고고유적 관련 조사연구 활동의 대부분의 경비와 경제적 지원은 결국 일반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현재의 발굴행위의 대부분을 이루는 구제발굴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경비는 대부분이 일반대중의 직·간접적 세금 또는 개인적 부담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일반대중에게 고고학의 연구 성과가 직접 전달되고 국민들의 문화적 그리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고학 발굴 조사와 이로 인해 알려지는 새로운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역사적 사실은 전문고고학자나 학계만이 아니라 일반대중과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고고학에 대한 대중교육의 효과는 결국 고고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그 보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보존활동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¹⁾.

이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그에 대한 애정이 나올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에 기인한다. 고고학과 고고유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가는 지역발전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이들 고고유적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역민적 관심을 갖게 할 것이며 중앙이나 지방 행정기관에 의한 유적 보호와 관리 활동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적보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고고학 연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1) McGimsey는 고고학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 또는 대중교육이 없이는 고고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없을 것이며 대중의 지원이 없이는 법률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고고유적을 보존할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일부 외국영화에서 보이는 이색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막연히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개발이나 국토개발 등의 경제적 사업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학문으로 일부 개발사업 시행자나 경제개발론자들에게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일반대중의 인식은 지금까지 한국의 고고학계가 고고학의 참모습을 바로 알려 고고학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많이 소홀하였던 것에 그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일반대중은 고고유적의 보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고고유적의 보존이 가져오는 혜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고고유적의 보존의식의 미비로 나타난다. 하나의 예로,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고고유적의 마지막 구제책인 유적의 긴급발굴조사조차 많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일반대중이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며 오히려 발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암암리에 유적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기도 한다. 이는 발굴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과 공사지연 등과 같은 외형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들의 고고유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고학이 어떤 학문이며 이를 통하여 어떤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과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대중교육을 통하여 고고학의 중요성과 고고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일깨우고 대중의 자발적인 보존의식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Ⅲ.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을 위한 접근방법

고고학이 일반대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상대로 고고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고고학에 의해 새로 드러난 우리의 과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과 방법이 우선 필요하다. 고고학과 일반대중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효율적인 대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이론과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체

McGimsey, C.R. III. 1972 *Public Archaeology*. (New York: Seminar Press) 6-7. 또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0년에 채택한 고고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헌장(ICOMOS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의 7장 1절에 The presenta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to the general public is an essential method of promoting an understanding of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ies. At the same time it i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moting an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its protection (일반대중에 대한 고고유산의 교육과 소개는 현재 사회의 기원과 발달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필요한 방법이다. 동시에 고고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적 연구를 요구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²⁾.

지금까지 고고학에 대한 대중교육은 주로 박물관의 고고유물의 전시를 통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 속에서 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일반적이다. 박물관에서의 일반적인 고고학 교육은 유물을 나열해 보여주며 그에 대한 단순한 해석을 제공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러한 박물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교육은 방문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고정된 전시 내용을 통하여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와 전시방법론상의 문제점, 즉 단지 과거의 물질적 표현물로서의 유물의 나열만이 이루어져 그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유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등의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 전시된 많은 유물이 우리의 과거 문화와 역사의 단지 일부 시대 또는 계층만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박물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예로, 다양한 전시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방문객이 정보습득에 있어서 전시물과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시교육형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인 고고유물을 통하여 특정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사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등, 유물전시방법이나 해석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방문객들이 저마다의 알고자 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시물과 상호교류가 가능한 전시기법과 단지 단편적인 유물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 유물이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었고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해석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은 박물관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물의 다양한 해석과 그에 대한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는 유물을 직접 이해하는 고고학자의 우선적인 연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박물관의 유물전시를 통한 교육활동 외에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고고학 또는 고고유산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교육이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고고학 교육은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 책, 대중잡지, 또는 인터넷 등 기타의 대중 전달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교육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효과를 가지고 오며 쉽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한 대중교육은 근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고고학과 고고학 교육에 관한 대중여론조사에서 일반대중이 제일 많이 고고학과 고고유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2) 이러한 분야에 관련된 대학에서의 고고학 전공과목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고고학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사한 연구 성과로 최근에 역사교육에 있어서의 가야사의 교육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다룬 저서가 출판되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서울: 도서출판 혜안)

조사되었으며 또한 가장 선호하는 고고학 교육 매체로 조사되었다³⁾.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용방송이나 교육방송 등을 통하여 방송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국내나 해외의 고고유적이나 발굴 등에 대한 고고학 관련 프로그램도 점차 많이 방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일은 일반대중에 대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추구하는 대중성과 이에 기인하는 대중적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은 때때로 역사적 사실 또는 발굴을 통한 고고학적 성과를 흥미위주로 방송하게 되며 이는 고고학의 참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⁴⁾.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에서 잘못 투영되는 고고학자 또는 고고학 연구에 관한 내용은 일반대중에게 고고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⁵⁾. 대중 그리고 기록물 영화 등에 나타나는 고고학의 이미지는 고고학이 무엇이며 고고학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⁶⁾.

텔레비전 등의 방송매체 뒤를 이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수단은 대중서적이나 교양잡지 등의 인쇄물 형태의 대중간행물들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고고학 관련 대중소설류 또는 흥미로운 고고학적 소재 등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고고학이나 고고학 발굴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흥미위주의 대중적 책들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책들의 일부는 고고학적 발굴을 흥미위주의 소위 낭만적인 '보물사냥꾼 (treasure hunter)'의 행위로 묘사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⁷⁾.

텔레비전, 대중서적, 또는 교양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고고학의 홍보나 교육은 그 전달 범위가 넓고 교육적 효과도 좋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들이 갖는 흥미위

3) Harris Interactive, 2000, Exploring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Archaeology. (Washington D.C.: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16-32.

4) 하나의 좋은 예로 작년까지 KBS를 통해 방송되었던 역사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흥미로운 주제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하여 많은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어 우리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나, 몇몇 주제의 선정이나 내용에 있어 대중적 흥미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사실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몇몇의 가설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진실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조영현은 고고유물이나 문화재를 무분별하게 감정하고 그 감정가를 매기는 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조영현, 2002. 「가야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대책」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서울: 도서출판 해안)331-332.

5) Baxter, Jane Eva, 2002 Teaching with "Indie": Using Film and Television to Teach Archaeology.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2/5:18-20.

6) Baxter, Jane Eva 2002 Popular Images and Popular Stereotypes: Images of Archaeologists in Popular and documentary film.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2/4:16-17.

7) 그 예로 고고학 발굴사나 유적발굴비화에 얽힌 책들은 많은 대중적 관심을 끌고 고고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

주의 대중성과 선정성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올바르고 재미있는 고고학 프로그램의 소재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적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를 위해서 고고학이나 고고유적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방송 때 고고학전문가와의 사전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이 전달되고 그 안에서 일반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송제작자와 고고학자와의 상호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관련 정보제공의 대부분은 새로운 발굴현장의 소개나 새로운 발견 등의 일회성 소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매체의 고고학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 보다 방송제작자들의 고고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방송프로그램의 소재의 부족함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고고학자의 적극적인 대중매체와의 접촉과 활용을 통한 고고학 활동의 홍보와 유적보존의식의 환기 등에 무관심 또는 소홀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⁸⁾. 고고학 활동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효과적 이용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⁹⁾.

예를 들어 고고학 발굴의 경우 텔레비전 등의 지역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심층적인 소개나 보도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고학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왜 이러한 발굴이 필요한지 그리고 발굴을 통해 나타나는 그 지역의 과거 역사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발굴관련자는 지역 방송국과의 밀접한 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다양한 보도 자료나 프로그램 소재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고고학자 맥마나몬(F. McManamon)¹⁰⁾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반대중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고고학 관련 정보를 접하므로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더욱 많이 활용하여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박물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대중강연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주요형태는 교실

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고학이 단지 낭만적이나 소위 인디어나 존스 식의 흥미로운 행위로 일반대중들에게 잘못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8)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고유적의 발굴내용에 대한 보도통제관행이 이러한 상황에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성락은 이러한 문화재청의 발굴내용에 대한 보도통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주 중요한 발굴이 아니면 발굴 보도에 대한 통제를 풀어 발굴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최성락, 2004, 「매장문화재 발굴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6 (2004년 10월15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공청회 발표원고).

9) 고고학 조사활동과 고고유적의 보존을 위한 대중매체의 효과적인 이용의 예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펜사콜라시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에서 벌어진 많은 역사 고고 유적의 발굴과 보존활동을 조사, 고고학자들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고고유적의 보존의식을 환기 시키고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Bense, A Justice, 1991, *Archaeology at Home: A Partnership in Pensacola Florida, Protecting the Past* (인터넷판 <http://www.cr.nps.gov/seac/protecting/html/4c-bense.htm>)

10) McManamon, Frank, 1999, *The Future of Public Archaeology*, *Common Ground* 4/4:20.

식 강의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현장체험이나 유적답사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체험학습활동도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이 전하는 고고학 관련 교육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선, 고고유적의 발굴이나 조사활동에 의하여 밝혀진 과거의 사회 문화적 사실을 상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반적인 개론 소개에서부터 심층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수준의 참가자들에 알맞은 눈높이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주제 또한 교육 참가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¹¹⁾. 특히, 지역적 고고유적의 소개나 고고학적 사실 등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역민에게 더욱 친밀히 다가갈 수 있는 주제이다. 다른 중요한 교육내용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고학이 우리 사회와 문화의 발달 그리고 다른 학문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이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인 고고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고고유적이 가지는 가치와 왜 고고유적이 보존되고 잘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참여 방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전달은 대중매체나 기타의 다른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교육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 대한 고고학 관련 교육은 대중매체를 통한 개괄적인 고고학 교육보다 더욱 심층적인 교육행위가 가능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유적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박물관이나 고고학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내용을 잘 소화시킨 아마추어 고고학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¹²⁾을 실시하여 좋은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전문고고학자들과 함께 실제적인 고고유적의 발굴이나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의 재산인 고고유적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들을 대중과 공유하는 현장인 이러한 대중교육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일반대중과의 교류기회를 통하여 이들에게 직접 다

11) 최중택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령이나 계층에 맞는 전문화된 다양한 사회교육강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고고학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최중택, 2000. 「대학박물관과 교육-현황과 과제」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55:182.

12) 한 예로 미국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Crow Canyon 고고학센터는 콜로라도 서남부지역의 유적 발굴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발굴현장에 대한 견학체험과 직접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과 학생을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Crow Canyon 고고학연구센터처럼 미국의 많은 고고학연구센터들은 학술발굴과 함께 자체적인 일반인과 학생 대상 고고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구와 대중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crowcanyon.org> 참고.

가가 고고학에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일반대중에게 쉽게 그리고 생생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발굴이나 유적조사 시에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과 느낌은 조사 당사자들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대중과의 상호교류는 막연히 느끼는 고고학에서 탈피하여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참 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¹³⁾.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관련 교육은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 많은 박물관들이나 기타 고고학 관련 기관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고고학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장차 다음 세대의 주체들인 이들 어린이들에게 고고유적의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한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장래에 고고학에 종사할 사람들을 미리 끌어들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주로 열리는 고고학 관련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학습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 어린이들은 주로 직접 대상을 만지고 접하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피아제(J. Piaget)의 아동발달이론¹⁴⁾과 학습은 경험을 통하여(즉 learning by doing) 이루어진다는 듀이(John Dewey)의 학습이론¹⁵⁾에 기초한 어린이 체험학습방법은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박물관의 학습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박물관들이나 사립박물관에서 다양한 주제별로 많은 체험교실을 운용하여 좋은 교육적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고고학 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¹⁶⁾. 한 예로서 미국의 러벅 레이크 랜드마크 고고유적¹⁷⁾에 세워진 현장 교육센터에서는 석기 만들기, 화살촉 만들기, 토기 만들기 등 유물을 실제적으로 모방하여 만들어보면서 대상유물의 용도와 그 제작기법 등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있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고고유적 모형에서 발굴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서 발굴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실제적인 발굴현장을 견학시키고 있다.

박물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어린이 대상 고고학 교육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각급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이러

13) Young, Peter A. 2003. 'The Archaeologist As Storyteller: How to get the public to care about what you do.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3/1:7-10.

14) Piaget, J. 1973. *The Child and Reality*. (New York: Grossman Publishers)

15) Dewey, J. 1934.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6) 국립춘천박물관에서 2004년 가을 특별전 '강원 고고학의 발자취'를 개최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상자속으로!! 고고학탐험'이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체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춘천박물관과 경희대학교 박물관교육대학원(KGEM)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된다.

17) 러벅 레이크 랜드마크 (Lubbock Lake Landmark) 홈페이지 참조
<http://www.depts.ttu.edu/museumttu/ll/>

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이미 외국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일에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학교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고고학 교육은 두 가지의 중요성을 가진다. 첫 번째, 고고학 교육을 통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전달과 이를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고학의 개념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고고학 교육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지적능력과 사고능력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⁸⁾.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연구방법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추리력을 요구하며 이러한 고고학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와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논리적인 교육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고학의 연구방법 즉, 연구목적의 수립, 자료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그리고 결론도출에 이르는 연구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많이 요구하는 소위 '문제해결능력'을 연마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관련 교육은 고고학의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성격에 의해 각급 학교의 역사, 사회, 문화, 과학 등과 같은 일반 교과목안에서 다양하게 학년별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육적 내용¹⁹⁾을 담아야하지만 다루는 주제나 교육방법은 조금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고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에 걸친 내용의 전달보다는 세부적이고 흥미로운 주제 위주의 교육이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이나 세부적인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자기 고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애착심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문화의 흔적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고학의 개념이나 조사방법론에 대한 개론적 소개에 있어서도 강의형식보다는 다양한 교육적 도구, 즉 체험활동, 시청각교재, 그리고 현장체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면서 스스로 참가하고 이해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박물관들과의 상호협력²⁰⁾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렇게 고고학에 관련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전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담당자

18) Saraydar, Stephen C. 2004. Archaeology and Critical Thinking: Exercises for Educators.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4/1:12-14.

19) 한 사례로 미국 유타 주에서 학생들에게 고고유적의 보존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고학 교육프로그램(Intrigue of the Past)은 고고학의 기본개념, 유타 주의 선사학, 고고학의 방법, 고고유적과 유물의 보존에 대한 윤리의식 등을 교육시키기 위한 34가지의 학년별 그리고 주제별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Moe, Jeanne. 1998. Education: Can It Make a Difference?. Common Ground 3/1:24-29.

20)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부 지방박물관에서는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로 연계하면 효과적인 학교교육프로그램운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인 이들에게 우선 고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정규 교과목 안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안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등지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원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또한 학교의 학년별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 예로, 전문고고학자들의 모임인 미국고고학회(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에는 고고학교육분과가 설치되어 고고학에 대한 대중교육과 학교과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오늘날 고고학에 대한 대중교육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발굴현장이나 고고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발굴현장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발굴을 참관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발굴에 직접 참여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반인 또는 학생들을 발굴이나 기타의 고고학적 활동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법은 많은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온다. 먼저, 발굴이나 기타 고고학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고학이 무엇이며 왜 고고유적의 원형보존이 중요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고유적에 대한 현장체험은 강의실에서 막연히 느끼는 지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으로 역사적 환경을 체험하게 한다. 막연히 이론적으로나 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기보다는 직접체험을 통해 고고학의 본질과 그 방법론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고고유물과 유적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고고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고고유적의 보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오게 된다²¹⁾. 이러한 현장체험은 사전에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적인 체험이 잘 조화될 때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 막연히 이루어지는 현장체험보다는 참가자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유적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용되어 적절히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일부 전문 고고학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 즉 일반인의 현장참관 또는 현장참여가 발굴의 진척이나 운영에 방해로 작용될 수 있다는 염려는 적절한 현장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오히려 발굴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적절히 보완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순수 자원봉사자 또는 비전공자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외국에서의 발굴현장의 운용사례²²⁾에서 보듯이 적절한 사전교육

21) Bymes Allison, M and Sara R. DeAloia, 2004. Everybody Get Together: Archaeology and the Public at the Boonshoft Museum, Dayton, Ohio, <http://www.sunwatch.org/research.html>.

22) 한 예로서 미국의 농림부 산하 산림국(USDA Forest Service)에서는 Passport in Time 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는 고고학 그리고 역사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국 관할지 안의 고고유적 또는 역사유적의 보존과

과 적절한 현장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발굴현장 경험은 학술발굴이나 구제발굴현장 모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고고학 관련 행사를 통하여 고고학에 대한 홍보와 대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관련 행사로는 일부 학회 차원의 학술행사나 박물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의 전시교육 행사가 있으나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관련 행사는 전무하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직접 상대하는 고고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보존의식의 고취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당위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외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소위 고고학주간(Archaeology Week)이나 고고학의 달(Archaeology Month) 또는 작게는 소규모로 고고학의 날(Archaeology Day) 등을 제정하여 고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일반대중에게 일깨우고 대중교육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매년 각 주 정부의 주도 하에 그 주의 박물관 그리고 기타 고고유산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 단위의 특정 고고학 홍보기간을 선포하여 다양한 고고학 관련 행사와 학술대회, 그리고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홍보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와 관심의 유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새로운 고고학적 지식의 확산과 정보교류 등 고고학 학문자체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고학주간 행사를 1983년에 시작한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는 처음에는 몇몇의 전시회와 행사로 시작하여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는 해마다 3월을 고고학의 달(Arizona Archaeology Awareness Month)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을 개최하고 있다²³⁾. 각종 행사들은 한 달 내내 계속되면서 고고학을 대중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 행사에는 현재 60개 이상의 연방정부, 주정부, 박물관, 대학교, 그리고 각종 고고학 관련 사립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약 100가지 이상의 행사들이 행하여지고 있다²⁴⁾. 이 고고학의 달에는 고고학엑스포행사도 같이 열리면서 고고학에 관련되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각종 전시회, 선사시대의 각종 도구들과

관리에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문고고학자 또는 역사학자들과 함께 고고유적의 발굴, 지표조사, 자료수집 또는 문헌조사 그리고 유적의 보존이나 재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elcome to Passport in Time, 2004.

<http://www.passportintime.com/about.html>

23) Greengrass, Mara. 1999. State Archaeology Weeks: Interpreting Archaeology for the Public. (Washington D.C.: NPS Archaeology and Ethnography Program, National Park Service)

<http://www.cr.nps.gov/aad/pubs/techbr/TCHBRF15.HTM>.

24) Arizona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2004. Arizona Archaeology Awareness Month. <http://www.pr.state.az.us/partnerships/shpo/publicprog.html>.

이들을 만드는 시연,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체험학습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고고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선사·역사시대의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고고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고학 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일반대중의 고고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바탕으로 대중들을 다양한 고고유적의 보존활동으로 유도하여 활용할 방안이 또한 필요하며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중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유적감시프로그램(Steward program),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그리고 직접적인 고고학조사활동의 참여 등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자원봉사유적감시프로그램(Steward program)은 자원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의 고고유적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나 지방단체의 관리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한 유적의 감시와 함께 보존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관리단체에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⁵⁾.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유적감시프로그램(The Arizona Site Steward Program)을 말할 수 있다²⁶⁾.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약 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애리조나 주 각지에 산재한 고고유적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면서 유적의 보존상태를 수시로 해당 관리단체에 보고한다. 이 프로그램은 애리조나 주 역사보존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그리고 주지사 고고학자문회(The Governor's Archaeology Advisory Commission) 그리고 애리조나 주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관리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산하의 각종 기관의 지원 하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약 10시간의 강의와 현장경험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은 관련법률, 유적과 유구의 확인방법, 지도독도법, 그리고 적절한 유적상태 보고방법 등을 교육받고 자신이 관리할 유적을 지정받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유적 모니터링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적보존활동 그리고 대중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감시 프로그램은 애리조나 주 외에도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잉글리쉬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등의 영국 문화유산 보존관련 단체들도 책임유적(adopt a monument)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이나 단체들이 담당 책임유적을 정기적으

25) Henderson, Gwynn A. 1991 The Kentucky Archaeological Registry. Archaeological Assistance Program, Technical Brief No 6(Revised 1991). (Washington D.C.: National Park Service).

26) Arizona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2004. Arizona Site Steward Program. <http://www.pr.state.az.us/partnerships/shpo/sitestew.html>.

로 방문하여 상태를 감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²⁷⁾.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한 시민운동이 태동²⁸⁾하고 있으나 고고유적을 전문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민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유적 보존프로그램 외에도 사유지 안에 위치한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존프로그램도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 켄터키 주의 고고유적 등록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다. 1987년에 처음 시작된 켄터키 주 고고유적 등록 프로그램 (The Kentucky Archaeological Registry program)은 개인 사유지 안에 위치한 중요한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유자와 주 정부의 밀접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대상유적의 보존에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에서는 소유자에 대해 해당 유적의 중요성과 유적의 보존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적절한 관리지원을 하면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식을 고취하여 유적의 항구적인 보존을 이끌어내고 있다²⁹⁾. 일반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이러한 형태의 유적보존프로그램은 유적의 보존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민의 유적보존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보존책임의식과 더불어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³⁰⁾.

한편,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고유적을 포함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자발적인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가나 공공단체들에 의한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보조하고 때로는 이들의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를 말할 수 있다. 이 내셔널 트러스트 활동은 현재 한국에서도³¹⁾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활동이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1894년에 영국에서 산업화로 점점 사라지고 훼손되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처음 결성되었으며, 그 후 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활동의 기본이 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³²⁾는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 아

27) 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2004. Participating in the Past.

<http://www.britarch.ac.uk/participation/report.html>.

28) 2004년 10월 18일에 전국의 30여 개 문화단체들이 참여하고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임재해) 등이 주최하는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출범식이 열렸다. 이 운동은 '안동문화지킴이'가 200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0여 가족 2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재 지킴이 운동으로 정착하였으며 이 운동을 전국적인 문화재 지킴이 운동으로 확대 발전할 계획으로 이날 안동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4.10.15).

29) Henderson, Gwynn A. 1991. The Kentucky Archaeological Registry. Archaeological Assistance Program, Technical Brief No 6(Revised 1991). (Washington D.C.: National Park Service)

30) Henderson, Gwynn A. 2004 Considerations for Protecting Archaeological Sites on Private Lands. <http://tps.cr.nps.gov/pad/considerations.cfm>.

31)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활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www.nationaltrust.or.kr/> 참고

32)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일랜드에 걸쳐 약 248,000헥타르의 보존가치 있는 땅을 소유관리하며 600마일에 걸친 해안선 그리고 약 200개의 보존가치 있는 건물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소유 관리되고 있는 이러한 유적과 자연유산들은 대부분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중교육의 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내셔널 트러스트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약 삼백만 명 이상의 회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국민들의 폭넓은 후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연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대중참여의 한 중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소유 관리 하에 있는 고고유적은 약 32,000개 이상으로 이들에 대한 기록과 조사, 그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관리 하에 있는 대표적인 고고유적으로는 해드리안 성벽 (Hadrian's Wall), 에버베리 (Avebury), 그리고 스톤헨지(Stonehenge) 등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많은 고고유적들이 포함된다.

또한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조사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대중의 직접참여는 전문 인력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큰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현지조사나 지표조사 등에서 현지 주민의 제보는 고고유적의 확인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고고학에 관련된 연구자 모두가 인정하는 일반대중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특정 유적의 존재와 그 위치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유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제보하는 한편, 또한 유적의 관리나 보존계획의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의 일반대중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고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헌장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³³⁾. 일반대중은 또한 고고유적의 실제적인 발굴조사에도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는 발굴현장에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조사 인력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실제적인 조사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일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또한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많은 고고학회 등에서 역시 전문적인 고고학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문고고학자들과 함께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³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대중의 발굴조사 참여에는 고고유적의 발굴은 고고

<http://www.nationaltrust.org.uk/>

33)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0년에 채택한 고고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헌장 (ICOMOS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의 6장 2절에는 Local commitment and participation should be actively sought and encouraged as a means of promoting the maintenance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즉 고고유산의 관리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민들의 노력과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4) 한 예로 미국의 버지니아 주 고고학회 (Archaeological Society of Virginia)에서는 일반시민회원들을 대상으로 고고학교육을 시켜서 발굴단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유물정리 또는 분석 등 여러 가지 고고학조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주 산하의 여러 기관에 의해 후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경험과 이론을 동시에 교육시켜 참가자들이 일정한 수준의 고고학 관련 조사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http://asv-archeology.org> 참조.

학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 전문교육과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사계획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원봉사자들의 발굴참여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대중의 발굴현장 참여는 참여자들이 현장조사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하여 고고학에 대한 더욱 깊은 전문적인 이해와 고고유적의 보존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다. 미국 고고학자 맥김지(McGimsey, C.R. III)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고고유적의 연구와 보존에는 일반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³⁵⁾.

IV.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활성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고고학을 포함한 문화유산 관련 대중교육은 주로 11개의 국립박물관들과 일부 사립 또는 대학 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서의 사회교육은 1954년 10월 현 국립경주박물관이 마련한 경주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효시로 하며, 이후 1977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대학이 개설됨으로 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현재 국립 중앙박물관과 지방의 국립박물관은 각 연령층을 상대로 하여 문화유산관련 강좌, 현장답사, 그리고 연수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특히 지방 박물관들의 경우, 그 지방의 특성과 역사적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³⁷⁾. 성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강좌와 현장학습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체험학습방법을 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이에 대한 많은 시설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많은 대학박물관들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수요교양강좌' 그리고 영남대학교박물관의 '문화대학원'의 운영은 좋은 예들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는 고고학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학 관련 교육방법과 내용은 주로 고고학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특정 주제에 맞추어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보충하여 유적을 방문하여 견학하는 형

35) McGimsey, Charles R., III. 1972. op. cit.(주 1) 6.

36) 지건길, 2004. 「한국 국립박물관의 사회교육: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2004년 ICOM 서울 총회 발표문) 1.

37) 지건길, 2004. 「앞글」(주 36) 1.

태이다. 이러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관련 학습내용은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획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즉 고고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이해시키는 세부적인 이론이나 방법론 그리고 그 대상인 고고유적의 가치와 유적보존의 중요성 등 고고학 관련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박물관이나 기타 고고학 관련 전문기관에서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직접적인 발굴 참여 등의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으며, 기타 고고유적의 보존을 위한 직접적인 대중참여 프로그램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고고학을 접할 기회로 국립 박물관이나 일부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외에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활용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이러한 우리의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고고학 관련 기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과 고고학의 대중화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대학박물관의 역할을 확대³⁸⁾하여 많은 고고학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대학박물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역사, 미술사, 고고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의 강좌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강좌에 더하여 고고학 관련 세부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더욱 심층적인 고고학 관련 지식과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수강생들을 활용하여 유적보호나 관리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한 가지 좋은 예로, 대구 영남대학교 박물관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대구 지역의 매장문화재 등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³⁹⁾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박물관은 학술발굴이나 기타 고고학 관련 활동에 자원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박물관은 학교 자체의 교수인력과 실제적인 고고유물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고학 관련 강의가 직접 가능하므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를 교육시키고 직접적인 조사활동에 자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이동식 현장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학교나 기타의 교육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고학 관련 전공자와 교육전문가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은 대중교육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대학의 해당학문의 발전

38) 성태규는 대학박물관의 일차적인 기능은 연구와 학생교육에 있지만 대학박물관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여야하며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태규, 1994,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박물관 대학 강좌」『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45, 123.

39) 영남대학교 박물관대학 수강생과 시민 등 50여명이 중심이 되어 1977년에 결성된 대구 문화재 지키기 시민모임은 현재 약 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대구 주변의 문화재와 특히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이 모임의 활동상은 한국문화관광개발원의 간행물『문화도시 문화복지』 144호(2003년 6월 1일)에 소개되어 있다.

을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 문제는 대학의 고고학 전공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정식 교과목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교육되어야 할 분야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의 고고학 전공교육은 고고학 자체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고고학적 지식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고학에 대한 대중교육의 문제 등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대학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이론수업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교육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전공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된다.

둘째, 이와 같은 대학박물관의 역할에 더하여 지방의 국립박물관들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고학의 대중교육에 힘써야한다. 현재 지방 국립박물관들은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그 지역의 고고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민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는 지방 국립박물관에서는 그 지역의 고고유적과 고고학 관련 조사활동에 대한 책임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전시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우선 대중강좌 등을 통하여 현재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학 연구 활동을 일반대중에게 소개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또한 직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고고학 조사활동에서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일반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노력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설 또는 특별전시 등의 정규적인 전시 활동 외에 지역에서 발굴을 통하여 새로이 출토된 유물을 간이로 전시하고 그 해당지역의 지역민이나 학교학생들을 초청하여 소개하고 교육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 여러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새로이 사회교육관을 신설하고 어린이 박물관이나 체험학습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대상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일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고고학 관련 어린이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고학 전문가와 박물관교육 전문가와의 협조와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발굴전문기관들이 고고학 관련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발굴전문기관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기타 유적과 괴원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고고유적의 보존과 구제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상 이들 발굴전문기관들에서의 대중교육의 역할은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의 공공재산인 고고유적을 일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들 발굴전문기관의 대중교육의 역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인력과 시간적 여건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역량 범위 안에서 대중교육에 힘써야한다. 우선, 발굴현장을 대중교육의 현장으로 적극 개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도 일부 발굴현장

을 개방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발굴현장에서는 발굴의 운영과 조사업무의 차질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실제적인 현장체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며 일반대중의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다. 적절한 현장안내 또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조금의 수고를 통해 발굴현장을 대중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발굴 전후 또는 발굴 진행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발굴의 대한 여러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지역주민 대상 현장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고고유적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존의식 그리고 직·간접적인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발굴을 통하여 나온 유물에 대한 소규모의 전시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나 지역의 학교 또는 지역 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방송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중교육의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발굴이나 기타 조사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보고서에 관한 점이다. 현장조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내는 보고서는 사실 많은 전문용어와 전문적인 기술을 하고 있어 고고학분야의 전문가 이외, 특히 일반대중들은 그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고고학 연구조사의 일차적인 자료인 보고서는 주로 고고학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대중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유적 발굴현장의 해당 지역민들마저도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간략히 소개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 외에는 다른 세부정보는 접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조사보고서 외에 간략하고 알기 쉽게 유적과 출토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용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대중용 보고서는 그 지역의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널리 배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여러 고고학회의 대중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고고학회의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고학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인 고고학회에서는 고고학의 대중교육에 많은 관심과 연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고학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육학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노력으로 다양한 대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과 연계한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학교에 보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고고학회처럼 우리나라의 여러 고고학회에서도 대중교육분과를 만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국 또는 지역의 여러 문화유산관련 시민단체들과의 밀접한 유대를 통하여 고고유적 관련 시민운동을 자문하

고 참가자들을 교육시키는 일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중앙이나 지방의 문화재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고고학 관련 다양한 홍보와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이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고학주간이나 고고학의 날 등의 행사를 전국이나 지방 단위로 기획 제정하여 각종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의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텔레비전을 포함한 방송매체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고고학의 내용과 유적보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홍보 수단이다. 이에 전국 또는 지방 차원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고고유적의 보존을 위한 홍보강화와 함께 교육적 목적의 다양한 고고학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유적 발굴현장의 일부 보도제한의 관행을 반드시 철폐하여야 하고 발굴의 진행과 결과를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의 중요성, 대중교육을 위한 접근방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고고학계의 상황과 현실에서 대중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반드시 고고학계와 고고학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과제이다. 고고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일은 고고학계나 또는 일선 행정기관만의 노력과 역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고고유산을 잘 보존하여 다음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에 일반대중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고학 전문가와 모든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는 일반대중에게 고고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 대중교육에 대한 고고학계나 관련 기관의 능동적 역할은 고고학이 가지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를 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고고학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고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고고학이 이들로부터 후원과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없이는 장차 고고학이 고고학자들만의 학문으로 전락되어 일반대중으로부터 점차 멀어질 수 있으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
(서울: 도서출판 혜안)
- 성태규, 1994.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박물관 대학 강좌」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45, 123-137
- 조영현, 2002. 「가야문화재의 보존현황과 대책」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
(서울: 도서출판 혜안) 319-350
- 지건길, 2004. 「한국 국립박물관의 사회교육: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2004년 ICOM 서울총회 발표문)
- 최성락, 2004. 「매장문화재 발굴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2004년 10월15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공청회 발표원고)
- 최종택, 2000년. 「대학박물관과 교육-현황과 과제」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55, 167-184
- Baxter, Jane Eva. 2002. Teaching with “Indie”: Using Film and Television to Teach Archaeology.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2/5:18-20
- Baxter, Jane Eva. 2002. Popular Images and Popular Stereotypes: Images of Archaeologists in
Popular and documentary film.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2/4:16-17
- Dewey, J., 1934.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Harris Interactive. 2000. *Exploring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Archaeology*.
(Washington D.C.: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16-32
- Henderson, Gwynn A. 1991. *The Kentucky Archaeological Registry*. Archaeological Assistance
Program, Technical Brief No 6(Revised 1991). (Washington D.C.: National Park Service).
- McGimsey, C.R. III.. 1972. *Public Archaeology*. (New York: Seminar Press) 6-7
- McManamon, Frank. 1999. The Future of Public Archaeology. *Common Ground* 4/4:20
- Moe, Jeanne. 1998. Education: Can It Make a Difference?. *Common Ground* 3/1:24-29
- Piaget, J., 1973. *The Child and Reality*. (New York: Grossman Publishers)
- Saraydar, Stephen C. 2004. Archaeology and Critical Thinking: Exercises for Educators.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4/1:12-14
- Young, Peter A. 2003. The Archaeologist As Storyteller: How to get the public to care about what
you do.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3/1:7-10

A Study on Public Education in Archaeology

Han, Sangwoo,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public education in archaeology and various educational methods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archaeology itself and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approaching method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public education in archaeology in Korea.

Archaeological sites usually are influenced by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an-related factors. Irreplaceable archaeological sites are also confronting massive destruction and much damage in the middle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processes. For mitigating these man-related negative impacts on archaeological site, the best way is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importance of the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hrough public education in archaeology. For this approach, there are several ways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archaeology and the importance of archaeological heritage. Among them, public education methods in archaeology through mass media, public lecture or workshop, active field participation, and public activities support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administration are useful and effective tools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archaeology and the importance of the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It is also important to induce the general public into actual field protection activities for the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For instance, archaeological site steward program, involvement on National Trust activity, field participation on actual archaeological research activities are currently available for this purpose.

In present, Korean archaeologists and archaeological society do not give much attention on public education in archaeology for the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his attitude must be changed in order to preserve valuable archaeological sites successfully, along with affection and recognition from the public on archaeology. It is an imperative task that archaeologists and archaeological societies in Korea give more attention on public education in archaeology through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ublic education programs, the development of field participation programs for the public on actual archaeological activitie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key word] archaeology, public education,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 public participation, museum education